

# ‘노마스크·1단계 방심’에 코로나 약한 고리 ‘와르르’

### 광주·전남 하룻새 14명 확진...100% 지역 내 감염 유흥주점 노마스크 도마...순천서도 ‘코스크’ 논란 1단계, 연말 겹쳐 느슨 “마스크·거리두기 등이 답”

50여 일간 코로나19 안전지대를 유지해온 광주·전남에 마스크 미착용 등에 따른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전염병에 취약한 ‘약한 고리’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고 있다. 2중, 3중 방호벽에 행정단속까지 강화하고 있으나, 게릴라식 감염이 끊이지 않고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적잖아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광주·전남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가 6명, 전남이 8명에 이른다. 14명 모두 해외 유입이 아닌 지역 내 감염이다.광주는 상무지구 유흥주점, 전남은 순천·광양·여수 등 동부권에 이어

화순 요양보호사발(發) 확진자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거나 신체적으로 밀접 접촉하는 ‘노마스크 확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날 현재 종업원 3명과 손님 3명 등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의 경우 첫 확진자가 역학조사 결과 지난 6~8일 해당 주점에서 여러 시간씩 일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확진자들 대부분도 마스크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 8월 20여 명의 집단 감염을 초래한 상무지구 내 또 다른 유

흥주점의 확진자 속속도 마스크 미착용이 주된 원인이었다. 전남 순천에선 확진자 1명이 소위 ‘코스크’(마스크를 내려 코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상태로 실내 운동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경계심이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연쇄·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방심이 부른 화(禍)’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 개월째 미뤄온 결혼식과 사회모임, 동호회, 심지어 연말 송년회까지도 “1단계 때 미리 갖자”며 일정을 앞당기는 분위기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발생장소와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초기 방역에 행정력을 쏟아오고 있으나, 일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데다 유흥주점의 경우 업종 특성상 종사자나 이용자가 스스로 검사를 받지 않는

채 생활할 경우 감염 경로가 복잡해지면서 방역망이 전파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약한 고리가 곳곳에서 끊어지면서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경우 자칫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월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신천지, 6월27일 이후 방문판매 등에서 촉발된 2차 확산을 지난 8월12일 이후 시작된 ‘3차 유행’까지 크게 3차례에 걸쳐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 도심집회(성림침례교회 포함) 91명 ▲말바우시장 국밥·순대집(석정사우나 포함) 30명 ▲상무 유흥주점 23명 ▲동광주 탁구클럽 17명 ▲중흥기원 7명 ▲교육연구정보원 6명 등 약한 고리들에서 집단 발생이 이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방심이 최대의 적



11일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모 유흥주점 간판 조명이 꺼져있다. 해당 주점 종사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고,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며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13일부터 적용되는 실내·외 마스크 의무화에 맞춰 되도록 집방을 차단 성능이 검증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별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까지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534명, 전남은 207명 등 모두 741명에 이른다. 지역감염은 광주가 464명, 전남은 160명이고, 해외 입국 감염자는 각각 70명, 47명이다.

오유나기자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내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법원 “성불평등 영화 상영 교사 직위해제 처분 정당”

### “학생 불쾌감 등으로 미뤄 직위해제 사유”...교사 항소 방침



성교육 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도덕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12일 도덕교사 베이상현씨가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베이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베이 교사는 2018년 9~10월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

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2010)를 상영했다. 10분 분량의 이 영화는 남녀 간 성역할을 뒤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 성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육아를 책임진 남성이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고, 여성 경찰관이 가해여성 편에서 수사하는가 하면 남성들이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의 모습을 빚대 여성 배우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를 거니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일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성비위 사건 지침에 따라 학생 전수조사에 이어 베이 교사의 수업 배제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베이 교사가 이에 반발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연재하자 지난해 7월 24일 베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베이 교사는 ‘교육장은 처분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직위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처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치분적인 성격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원고의 (교육청 지도사항) 불응 등으로 미뤄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베이 교사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봉우기자

## ‘광주 코로나 주말 분수령’ 대규모 집회 자제...강력 법적 조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이번 주말을 분수령으로 보고 대규모 집회 자제와 함께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

사회견을 열고 “마스크 착용과 행사 참석 자제”를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동안 총 29명(광주14명·전남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순천 신한은행 연향동지점 관련 광주·전남 확진자가 8명이며 지난 8일 광주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던

방송통신고 관련 5명, 유흥업소발 6명 등이다. 이 시장은 “(최근 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날 오전 감염병 전문가와 의료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현재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